

동물약품 수출 5백만불탑 수상한 중앙케미칼

— 김봉진 전무 인터뷰 —

추 용 진 기자



66

국내 동물약품업체 중 업계최초로 5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중앙케미칼.

1980년에 국내시장에서 해외시장으로 판로를 넓혀 작년('95년)에는 재작년('94년)에 비해 280%의 수출 증가율을 나타낸 중앙케미칼은 김무진 대표이사와 120여명의 인원이 창조적인 개척정신, 적극적인 사고방식, 상호간의 인화단결로 우수한 동물약품을 생산하여 21세기 세계 동물약품 시장의 주인이 되겠다는 야심찬 포부로 임하고 있었다.

동물약품 수출 5백만불탑 수상을 계기로 우리나라 동물약품의 해외 진출을 구축하게 된 중앙케미칼의 김봉진 전무를 만나 해외시장을 개척하게 된 경위와 앞으로의 수출방향에 대하여 들어보았다.

99

Q1 업계 최초로 500만불 수출의 탑을 달성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500만불 수출의 탑은 '94년 7월 1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FOB실적 500만불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94년 7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수출실적이 미화 156만불 이었으며 '95년 1, 2월의 수출실적이 좋아 3월초 현재 수출 상황을 참조로 500만불 수출의 탑 수상을 목표로 삼게되었습니다.

또한 일찌기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이 주효했으며, 철저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바이어들이 중앙케미칼 제품의 우수함을 스스로 인증하게 한 것이 수출 증폭의 견인차가 되었습니다.

Q2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리게 된 이유와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국내 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탈피하고자 또 다른 시장인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고 그동

안 남아있는 생산 시설의 가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작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잘 알려진 한국의 제품을 말레이시아로 시작하여 동남아 인접국부터 소개하였으나 어려웠던 점은 동물약품 산업이 주로 유럽이나 미국같은 선진국들의 독점시장이었고 시장개척 당시 제품 소개서만으로 바이어들에게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Q3 해외 수출 전략 및 노하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여 바이어들 스스로 중앙케미칼 제품을 평가하고 우수한 품질임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GMPC(Good Manufacturing Practices) 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공정 관리 및 품질관리로 제품의 차별화와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합니다.

한편 정기적인 거래처 방문 및 시장개척, 해외 대리점 요청시 세미나 지원, 해외 축산관련지 등에 광고 게재, 지속적인 자료보완 및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Q4 주요 수출 품목과 수출 대상국가는 어디입니까?

주요 수출 품목은 효모배양물제 'CYC-100', 'CYC PLUS', 항곰팡이제 '물드킬러', '퍼마졸-500', '니아신', '비타민', '니아신 아미이드' 등이고, 수출대상 국가는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홍콩, 중국, 일본,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쿠웨이트,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입니다.

Q5 올해의 주요사업계획 및 방향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시장확장에 노력할 것이며 특히 중국 및 중동 시장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국은 제품 등록중에 있으며 올초에 중동에 방문하여 기존의 거래선 관계를 돈독히 하고 판매증진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효모배양물제인 CYC의 생산과 판매를 적극 늘리고 98년도에 수출 천만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6 유해 물질잔류문제에 대한 견해는 어떠합니까?

양돈농가에서 약품만 쓰면 다 된다는 식의 마구잡이식의 생각에서 벗어나 동물약품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정해진 용법, 용량의 철저한 준수로 동물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잔류문제는 예방과 성장촉진을 동시에 충족하고 잔류가 없는 생균제제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7 국내 동물약품업계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동물약품업계와 양축가는 공존 공생해야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약품업체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양축가로 하여금 국산 동물약품에 대한 신뢰를 갖게하는 동시에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아 스스로 경쟁력을 길러야 하겠습니까.

이와함께 양축가들도 수입원제품에 대한 선호경향에서 벗어나 국내 동물약품을 애용하고 약품의 올바른 사용으로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하겠습니까.